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22
VOL.245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SUBLIMAGE L'EXTRAIT

단 한 방울 안에 담긴 수블리마지의 놀라운 힘

수블리마지는 피부의 활력을 깨우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연구소가 엄선한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로, 뛰어난 스킨케어 효능이 돋보이는 히말라야산 스웨티아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로 세럼처럼 강력한 리페어 효과와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탁월한 성분의 힘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사용 직후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활력이 되살아나 더욱 탄력 있어 보입니다. 사용할수록 매끈하고 부드러워진 피부는 송고하게 빛나며 탄탄해집니다.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PANERAI

LABORATORIO DI IDEE



INTERNATIONAL
8
YEARS
LIMITED
WARRANTY
PANERAI

EXTEND YOUR INTERNATIONAL LIMITED WARRANTY
FOR UP TO 8 YEARS ON PANERAI.COM

PAM.GUARD

갤러리아 EAST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에비뉴엘 본점 - 더현대 서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판교점

L U M I N O R D U E
L U N A
ITALIAN CREATIVITY & SWISS WATCHMAKING EXPERTISE



FRED

HAUTE JOAILLER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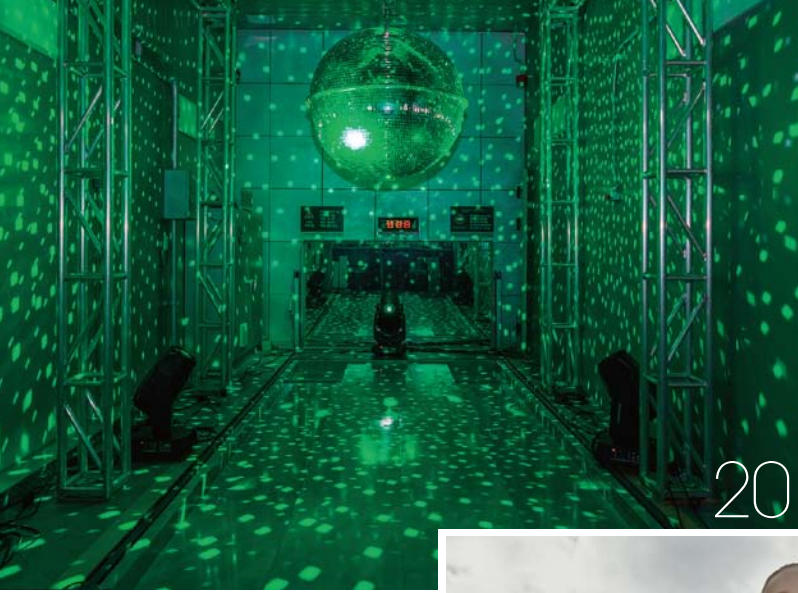
FEN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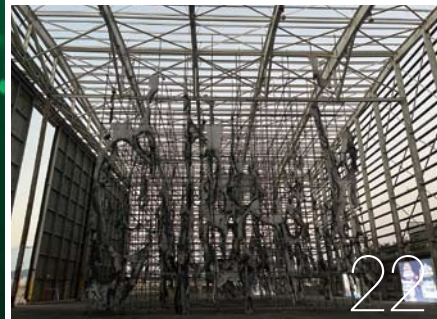
FENDI

POIRET





20



22



반클리프 아펠의 시대를 초월한 행운의 아이콘 알함브라 모티브는 1968년 처음 선보였다. 다양한 컬러와 컷팅, 진귀한 소재를 활용했으며, 22.7x 22.7mm의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매치한 베젤과 다이얼, 핀 버클은 18K 골드도 통일했다. 알함브라 주얼리와 레이어드하던 더욱 조화롭다. 문의 1877-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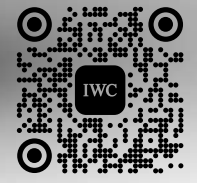
34



16

- 20 **THE AGE OF HOMO ARTIS** 잘나가는 브랜드들, 혹은 차별화를 꾀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펼치는 브랜드들은 요즘 대부분 '아트 마케팅'을 한다. 메세나적 활동이든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든 오늘날 소비사회의 상징인 브랜드에 있어 예술은 제1 외국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용어로 귀결되는 듯하고, 문화 예술계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와의 만남은 필수적인 동맹이자 조합으로 여겨진다.
- 22 **자연 속 영감 찾기, 비안날레의 계절** 우리에게 짝수 해 가을은 비안날레의 계절이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이자 규모 큰 문화 예술계 행사인 비안날레 일정도 꼬여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팬데믹 3년 차인 올해에는 대다수 비안날레가 정상 궤도로 다시 진입한 모양새다.
- 23 **EXHIBITION IN FOCUS** 서울의 가을을 물들이고 있는 사전전 3선을 소개한다.
- 24 **COLOR O'CLOCK** 평범한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다채로운 매력의 컬러 다이얼 워치.
- 26 **MODERN AND ROMANTIC** 오메가의 대표 컬렉션 '드 빌 트레저'. 시아즈는 즐기고, 스트랩엔 우아함과 로맨틱함을 장식해 '드 빌 미니 트레저'로 새롭게 태어났다.
- 28 **POWER OF STONE** 아름다운 스톤을 다루는 힘, 장인 정신에 바탕을 둔 금속 세공 기술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지닌 주얼리를 만드는 포델라토의 대표 링과 네크리스.
- 30 **TIME OF SUCCESS** 클래식하고 모던한 매력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남성의 머스트 해브.
- 31 **BELLE ÉPOQUE REEL** 이탈리아에서 수공예로 섬세하게 제작하는 예술 작품과 같은 주얼리, 디자이너의 새로운 컬렉션 '벨 에포크' 링을 소개한다.
- 32 **POWER RECOVERY** 사설 스케이터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블리마지 라인.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바닐라 플라-폴리아와 사텔 연구소의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빛아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 34 **COAT CHECK** 이제 막 도착한 2022 가을 히트 코트 리스트.
- 42 **EMPIRE OF THE SUN**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쇼가 시작됐다. 니콜라 제스카에르의 2023 루이 비통 여성 크루즈 컬렉션.
- 44 **SUSTAINABILITY UTOPIA IN FIRENZE** 본사부터 이노베이션 센터 '아트랩', 글로벌 디지털 고객 서비스 센터 구찌 9, 예술과 문화, 미신이 어우러져 고유의 경험을 선사하는 구찌 거점이 모여 있는 파렌체를 다녀왔다.
- 46 **EDITOR'S PICK** 촉촉한 고보습 스킨케어부터 묵직한 향의 파퓰까지, 이달의 뷰티템 13.

THE IWC PORTUGIESE.



DOWNLOAD THE IWC APP FOR VIRTUAL TRY-ON

Portugieser Chronograph. Ref. 3716: 포르투기저의 기능적인 디자인은 오래전 선박에서 항법을 위해 사용되었던 항해용 정밀 시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Portugieser Chronograph)의 선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다이얼은 바로 그 계보를 연상시켜 줍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2개의 토틸라이저와 1/4초 단위로 각인되어 있는 플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한 시계에 스포티한 감성을 부여합니다. IWC. ENGINEERING BEYOND TIME. SINCE 1868.

IWC-manufactured chronograph movement 69355 calibre · Self-winding · 46-hour power reserve · Stopwatch function with minutes and seconds · Small hacking seconds · Sapphire glass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3 bar · Diameter 41 mm

Style 조선일보 Issue.245 November 2022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해 · 재판 |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강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

알함브라의 추억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상징적인 골드 비즈 기법과 워터메이킹의 전문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2개 라인의 비즈로 장식한 케이스와 화이트 머더오브필 다이얼이 매력적이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각각 연결된 골드 비즈는 손목을 피부처럼 감싸 움직이는 모든 순간과 하나가 되는 환상적인 착용감을 선사한다. 탈착하기 쉬운 브레이슬릿은 그로그랭 패브릭 또는 옐리게이더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하다. 문의 1877-4128



PEARLY, PEARLY!

맑고 영롱한 우윳빛이 불수축 빠져들게 하는 진주 소재 주얼리 3.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쇼메 조세핀 이그레드** 링 조세핀 컬렉션의 우아한 세이프의 화이트 골드 링으로 아교아 장식 진주와 그를 둘러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이 화려함을 부각한다. 1천80만원. 문의 02-3442-3359 **피아제 포제신 머더오브필 오픈 링** 18K 핑크 골드 소재에 2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2캐럿을 세팅했으며, 2개의 머더오브필 카보숑 장식으로 마무리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더한다. 4백36만원. 문의 1668-1874 **타사키 코브 링** 광활한 바다가 조각한 듯 빛아년 면에서 영감을 얻은 코브 컬렉션의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 아교아 진주를 품고 있는 듯 연출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OVELY LIPS

입술을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향과 컬러까지 담은 요즘 립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로즈 에르메스 로지 립 인텐서** 로즈 데테 입술에 매끄럽게 보이도록 관직이 가볍고 투명한 립 메이킹을 완성하는 립밤 컴플렉스 4g 9만원. 문의 02-310-5174 **바이레도 클리어 립밤 카모밀 당주** 브랜드의 독보적인 향을 담은 립밤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발리며, 촉촉한 사용감을 남기고 세이 메트릭에 마무리된다. 메탈릭한 패키지와 또한 문본이다. 2.5g 6만7천원. 문의 02-3479-1688 **상하이 립 시크 아보우** 립밤인 듯 아년 듯 생생한 컬러까지 겸비한 제품으로 하얗게 입술을 촉촉하게 보호하고 진정 효과까지 선사한다. 은은한 피치 누드 컬러 2.5g 6만9천원. 문의 070-4370-751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아시스턴트 **신정원**



ICONIC FANCY

글로벌 패션 하우스 펜디에서 시즌 컬러를 담은 2022 F/W 피카부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 메종의 아이콘인 피카부 아이시유(SeeU) 디자인을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인 이번 캡슐 컬렉션에서는 펜디만의 차별화된 가죽 장인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블랙·화이트·민트 그린 컬러의 부드러운 그레인 가죽 소재에 대비를 이루는 오버사이즈 셀라리아(Selleria) 스타치로 대담하고 볼드한 터치를 더했으며, 이그조직 레더 한들 디테일로 혁신적이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미디엄·스몰·미니 사이즈로 출시되며 전세계 펜디 부티크와 fendi.com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우부터 차례대로) 미니 5백만원대, 미디엄 7백만원대, 문의 02-514-0652

테니스 하기 좋은 날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독특하고 매끈한 미학이 특징인 라켓과 웨딩에서 수년간 재생 플라스틱 소재에서 얻은 패브릭 라임론 소재의 라켓 파우치 2백65만원 **포라다**, 문의 02-3218-5320. 잔디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린 자카드 벨벳에 상징적인 모노그램 패턴을 입힌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공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성정민** 아시스턴트 **신정원**

PLAY TENNIS!



WARM ENOUGH!

토스에서 2022 F/W 시즌을 맞아 여성 W.G. (윈터 고마노)를 출시한다. W.G.는 토즈 컬렉션에 한 획을 그은 핵심 아이템으로 토의 스타일과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했다. 토즈는 미운틴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신축성 있고 배아스한 앵클부츠부터 레더와 퍼, 패브릭 등 다채로운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토즈의 아이코닉한 고무 패들 디테일의 비덕과 획을 갖추고, 앞면을 스타일링 차원 토즈 모노그램으로 패셔너블함을 더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미 사이니 가죽 소재의 W.G. 1백32만원대, 올 플방 소재의 W.G. 2백32만원대, 문의 02-3448-0442



변치않는 아름다움

모던하면서도 인パクト 있는 디자인과 스톤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토. 그중 브랜드의 시그니처이자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누도 컬렉션 링을 소개한다. 같은 다이아몬드 링이지만 누도 디자인과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 누도 디자인을 다이아몬드로 재해석해 생생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싱글로는 물론 다른 누도 링과 매치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밴드에 총 1.8캐럿, 1백57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문의 02-3143-9486

PLANET EXPLORER



한눈에 세계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미네르바 포켓 워치의 우아한 미학적 코드를 접목한 몽블랑 레가시 오르비스 태리틀. 시계의 이름은 라틴어로 세계, 지구, 세상을 의미하는 오르비스 태리틀(Orbis Terrarum)에서 유래했으며, 회전 디스크의 그레이 색조 변화를 통해 낮과 밤 디스플레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로즈 골드로 코팅한 대륙과 지오스인치는 블랙 및 그레이 다이얼, 그리고 디스크 그레이 옐리게이더 스트랩이 조화를 이뤄 대담하고 현대적인 미학을 선보인다. 9백19만원. 문의 1877-5408

ITALIAN LUXURY LIVING



배어난 기술과 감성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탈리아 명품 라빙 브랜드가 서울 강남에 특유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선보였다. 지난 10월 중순 장식으로 문을 연 보피 스튜디오 오 사울(Boffi Studio Seoul) 쇼룸이다. 1934년 하이엔드 주방 기구로 출발해 욕실, 시스템 가구까지 확장해온 전통 강자 보피는 특히 상세함이 갖든 맞춤형 제작에서 강점을 내세우는데, 루이지 마스소니(Luigi Massoni),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 피에르 리소니(Piero Lissoni) 등으로 이어지는 자명한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비전과 창조적 혁신을 도모해왔다. 그리고 2015년 독보적인 감성의 가구 브랜드 데 파도바(De Padova)를 인수하는 등 사업 내·외연을 키워며 현재 보피 | 데 파도바(Boffi | De Padova) 그룹으로 라빙 분야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현대적인 세련미를 품은 이번 서울 쇼룸 공간에서는 보피의 주방, 욕실, 맞춤형 제작 가능한 욕실 시스템을 위시해 AD의 파티션, 도어 시스템, 마-유티라즈 디자인을 투영한 타임 & 스타일 에디션(Time & Style edition)이 완성한 데 파도바의 기구와 조명 컬렉션, 그리고 MAU 스튜디오의 모듈식 선반 시스템 등 각 영역에서 특징점을 가진 브랜드들의 시너지가 눈에 띄는 리얼업을 접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52길 9 문의 02-6953-5197



자연스러운 입체감

얼굴의 윤곽과 라인을 잡아줘 입체감을 선사하는 쵸아레의 메타메드 쵸아레 르 백트 크림 듀오를 소개한다. 파운데이션과 컨투어링 세이 드가 밤 타입으로 구성된 백트메, 부드럽고 촉촉한 크림 투 파우더 텍스처가 뭉침 없이 균일하게 피부에 레이어링되어 자연스러운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돕는다. 오일과 세럼 컨트를 기능으로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디크닝 없이 화사한 톤을 연출할 수 있다. 또 피부에 밀착되는 즉시 모공과 주름을 매끈하게 커버해 보다 완벽한 피팅결과를 가질 수 있다. 8gX2 15만원. 문의 02-310-5025



파라가형 감성을 대담하게 표현한 소재 베레모 68만원 7만.

시암 소재로 독특한 감성을 대하는 187500이하 FORTY8 벨. 42.7x33x23cm 1천만원 내 반다.

시암 소재의 2종 컬러가 1982 X 플러스 원본에 시암 소재를 부호 8만 원 용량입니다.

for him Selection

소재에 변주를 주면 따뜻함에 은은한 멋을 더할 수 있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스테인리스 스틸 메시 일로니즈 브레이슬릿과 텍스타일 스트랩을 동시에 중첩하는 다이아몬드 오리지널 60주년 에디션 파우치 세트 2백7만원 리도.

카프 스킨 소재에 로고로 포인트를 준 긴터니 벨트 79만원 파라기모.

스트라이프 굵은 소재의 150cm 특 핏스 팬츠 1백59만원 로로피아나.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는 해링본 울 재킷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메탈 소재의 미니 시그니처 체인 팔찌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브랜드 시그니처인 원스토프 포인트의 편안한 울재킷. 25x18x2cm, 2백79만원 팔찌는 7만 반다.

레더가 메인인감을 더하고 시암 소재를 손잡이 부분에 적용한 1982 X 플러스 원본. 25x18x2cm, 2백79만원

가운데 실어넣는 스텐드 소재의 3개 박스 7만 미정 알도 로렌 로렌 리벨 리벨.

양가죽 소재에 시암으로 포인트를 준 재킷 2천만원 내 에르메스.

장미톤 골드 소재의 에르루 드 카르미에 브레이슬릿 1천19만원 내 카르미에.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마이스타스틱 셀러션 6cc 카드 홀더 30만원 용량량.

새틴 숏이저가죽으로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자랑하는 아미즈나 15. 22x15x9.5cm, 3백30만원 로에베.

Publicis EtNora



Time travels the world.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밴디 02-514-0652 구찌 02-3452-1521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몽클레르 0030-8321-0427
파라기모 02-3430-7854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티노 가리버디니 02-2015-4653 토즈 02-3438-6008
로로피아나 02-546-0615 에르메스 02-542-6622 알도 로렌 리벨 02-3438-6235 몽클레르 1877-5408
카르미에 1877-4326 로에베 0507-1371-6105 리도 02-3479-1158



100% 펠트 소재로 트라카 사일렌스 1억 7천 원

보온력 높은 시아링 소재의 모자 2백만원대 **에르메스**.

18K 골드 컬러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2019년 브리타닉 한디언으로 0 캐럿 다이아몬드를 팔로우하는 **에르메스** **피에타**.

메탈 로고가 포인트인 트윈드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18K 골드 컬러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2019년 브리타닉 한디언으로 0 캐럿 다이아몬드를 팔로우하는 **에르메스** **피에타**.

송이귀장과 모 스텔의 샹시가 결합된 독특한 수조 1백만원대 **페라기오**.

Selection *for her*

추워진 날씨를 대비할 패셔너블한 소재 플레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18K 옐로 골드 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및 마카스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완성한 빅토리아 비인 클리어어 이어링 6백50만원 **타파나**.

하운즈투스 패턴으로 시그한 매력을 더한 스킵 스카트 1백70만원 **몰레반** **비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시토나사의 그린 옐로에이더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오로토파노 오토크 34 1천8백40만원 **IWC**.

테디 스타일의 소재와 디자인이 매력적인 플로리 테디 백, 20X31X19cm, 7백69만원 **모이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시토나사의 그린 옐로에이더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오로토파노 오토크 34 1천8백40만원 **IWC**.

빛 비친 그린 컬러로 반짝이는 감성을 더한 트윈드 울 재킷 4백20만원 **구찌**.

18K 골드 컬러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2019년 브리타닉 한디언으로 0 캐럿 다이아몬드를 팔로우하는 **에르메스** **피에타**.

독특한 패턴 포인트가 있는 캐시미어 크로세라 글러브즈 1백50만원대 **에르메스**.

프리스 컬러에 매력적인 이슬을 더하는 모히비 울 소재 스카트 1천100만원 **아르네 스투디오**.

비비드한 레드 컬러의 오픈카와 울 소재로 독특한 무드를 강조한 줄리7백 가격 미정 **막시마라**.

- 셀린느 02-549-6631
- 샤넬 090-805-9628
- 피에타 02-540-2297
- 타파나 02-6250-8620
- IWC 1877-4315
- 에르메스 02-542-6622
- 모이나 02-2254-4150
- 펜디 02-514-0652
- 포엠티토 02-3143-9486
- 구찌 02-3452-1521
- 에르메스 02-542-6622
- 몰레반비나 02-3442-6888
- 막시마라 02-542-2280
- 페라기오 02-3430-7854
- 아르네 스투디오 02-542-2290



POIRET



Brands & Artketing_8 공생의 역학

The age of Homo Artis

잘나가는 브랜드들, 혹은 차별화를 꾀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펼치는 브랜드들은 요즘 대부분 '아트 마케팅'을 한다. 메세나적 활동이든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든 오늘날 소비사회의 상징인 브랜드에 있어 예술은 제1 외국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용어로 귀결되는 듯하고, 문화 예술계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와의 만남은 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화제로 부각되기에는 유리하므로 필수적인 동맹이자 조합으로 여겨진다. 전부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술도 엄연한 소비사회의 상품이기에 남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창조적 협업은 서로에게 때로는 엄청난 시너지를 선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각 분야의 아트 마케팅도 흡사 춘추전국시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얼마 전 루이 비통이 6인의 현대미술가와 손잡고 펼치는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티카피신(ArtyCapucines)' 컬렉션이 새롭게 공개됐다. 2019년 처음 선보인 이 컬렉션은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특히 올해는 한국 작가의 이름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 단색조 추상을 일컫는 단색화' 가장 박서보 화백이 자신의 대표 연작 '모법' 시리즈 중 하나를 바탕으로 커피핀 백을 디자인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보니 문득 어떤 미술 서적에서 제기된 것과 비슷한 질문이 떠올랐다. 당대를 호령하는 걸출한 예술가의 영감 어린 손길이 닿아 탄생한 핸드백은 예술 작품으로 간주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독특한 패션 디자인 아이템으로 여겨야 할까? 필자가 만난 현대미술 컬렉터는 이 같은 백을 가지고 있는데, 작품처럼 모셔놓고 주로 감상을 한다. 실제로 이런 핸드백들은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미술품 경매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아예 내로라하는 미술관에 전시되거나 소장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디자인 작품으로도, 또는 미술 작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희소성과 미학적 가

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미술관의 시각과 성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어쨌거나 '패션의 예술화'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비단 패션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술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 소비사회에 속해 있고, 장르를 막론하고 산업의 예술화 경향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일찍이 20세기의 문호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산업이 없는 삶은 메마른 불모지이고, 예술이 결여된 산업은 야만이라고 했듯이 말이다. 개인이나 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와 취향이 현대인의 계급 구분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그 유명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주장은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 예술성은 일터에서도 스펀세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준이다. 창조적 능력=인적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현대 사회의 노동자들은 보다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을 요구 받는다. 저자 조정환이 설파했듯 '예술 인간(homo artis)'의 시대라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일 듯하다. 그러므로 브랜드 연구술을 위한 무기로 '예술을 선호하는 작금의 현상은 더



강력하게 전개되기 마련이고, 특히 원래부터 뿌리를 예술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럭셔리 브랜드들로서는 열전 어린 투자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예술을 닦거나 그 자체가 되고 싶은 럭셔리 브랜드들

지난 9월 초 키아프(Kiاف Seoul)와의 동행으로 첫 단추를 꿰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의 등장은 여러모로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중에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참여해온 그 어떤 행사에 비해 눈에 띄게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도 꼽힌다. 아트 페어가 열린 코엑스(COEX) 로비부터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단행했던 생 로랑은 국내 화단의 대표 작가 이배(Lee Bae) 전사를 위한 부스를 프리즈 서울 전시장 내에 차려 화제를 일으켰고, 샴페인 라인지에서는 LVMH 그룹에서 아트 마케팅을 전개하는 전통을 지켜온 브랜드인 루이루아(Ruinart)가 한국의 스타 작가인 김중하 화백과의 협업을 펼쳐냈다. 그의 작품으로 라운지 곳곳을 수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트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시킨 샴페인 보틀도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브랜드의 상징인 '블랑 드 블랑 세컨드 스킨 매그넘' 15병에 표현해낸 샴페인 보틀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친환경적 면모를 자연스럽게 내보였다. 스위스 위치메이킹 브랜드 브레게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티스트 파블로 브론스타인(Pablo Bronstein)과의 협업을 전개한 라운지를, 그리고 명품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 역시 '홈 프레이그런스' 라인을 매력적인 연출 방식으로 소개한 라운지를 각각 꾸몄다. '장외 무대에서의 창조적 협업도 풍성했다. 샤넬 코리아는 한국의 기성 예술가 3인(박진아, 박경근, 정화승)과 떠오르



1곳 와이브즈 앤드 워리어즈, 애플루트 블랭크(Absolut Blank), 2022, 합판에 페인트, 각 165 x 500cm,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지난 10월 6일 개막해 내년 1월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기획전 《예술과 산업에서 선보인 작품, 애플루트는 아트 협업의 역사가 긴보드가 브랜드다. 2 AES+F, '생명의 순환(The Circle of Life)', 2021, 상급 채플 필름, 1부 25초, 소장처 The Emir Kaya Collection. 국내 아이웨이 브랜드 젠론스타가 러시아 아티스트 칼레타브 AES+F와 나노 칼렉션 캠페인을 위해 협업한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단편 영상. 3 현대자동차의 2013년 예술-산업 협업 프로젝트 '더 브랜더전트 아트 프로젝트: 드림 소시이어티에서 첫선을 보인 김중호 작가의 작품을 재구성한 '모던 보이'(2022). 평행해 보이지만 스스로 빛을 발해 진전하는 대중을 뜻하는 제목의 작품으로 세부의 모형 1백8개가 등장했다. 4 양푸동, '처음 맞는 봄', 2010, 1채널 영상, 9분 11초, 자료 제공 양푸동, 상하이 ※ 1~4 이미지 제공 울산시립미술관 5 한국의 박사보 화백을 비롯해 현대미술 작가 62인의 협업으로 탄생한 루이 비통 '아티카피신 4'. 협업 작가는 (왼쪽부터) 아델리 베르트랑, 다니엘 뷔앙, 피터 마르노, 박사보, 우고 론다노네, 케리다인코.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6 울산시립미술관 《예술과 산업》에서 선보인 캐나다 출신의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알트메츠(David Altmejd)의 작품(영상, 조각 등) 설치 모습. 알트메츠는 미국 록 밴드 에메이 어의 네 번째 앨범 《아멘 & 굿바이》(2016) 커버 작업을 위한 협업을 펼쳤다. Photo by SY Ko 7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와 롯데제과의 협업 전시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 설치 모습. 롯데제와함 걸출작 예술가 뉴델 6층 이터룸에서 진행 중인 전시로 9인의 작가 회화, 케릭터 아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업 세계를 흥미롭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이미지 제공 롯데제과 8, 9 지난 9월 초 프리즈 서울 주간,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인 송은에서는 주자장을 '부기 부기 부기'(Boogie Woogie) 파티의 무대로 변신시켜 문화 예술계 손님들을 맞이했다. 보타가 베넷과 복순도가 등의 브랜드들이 후원했다. 이미지 제공 송은 10 프랑스의 유서 깊은 샴페인 브랜드 루이루아(Ruinart)가 지난 9월 초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2에러 운자를 열었다. 김중하 작가와의 아트 협업으로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브랜드의 상징인 '멜랑 드 블랑 세컨드 스킨 매그넘' 15병에 표현해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미지 제공 루이루아

는 신진 예술가 3인(유예림, 이우성, 김경태)이 짝을 지어 예술적 대화를 나누는 영상 시리즈 〈나우 & 넥스트〉를 선보였고, MCM은 최정화 작가와의 협업으로 서울 청담동 플래그십 매장을 수놓았는데, 매장 앞에 놓인 설치 작품 '인피니티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당시 아트 주간에는 컬렉터와 문화 예술계 인사가 모여드는 파티도 붐물처럼 쏟아졌는데, 여기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자취가 강하게 묻어났다. 에켄데 하이 주얼리 브랜드 쇼메(Chaumet)가 가나아트와 손잡고 프라이빗 부잉룸에서 칵테일 리셉션을 진행한 다든지 서울 도산대로에 자리한 아트 센터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헤어초크 & 드 피론이 이끈 설계로 유명한 송은에서 주최한 파티의 후원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가 맡는다는지 하는 식이다. 특히 송은의 '부기부기 파티'는 주차장 공간을 멋지게 파티장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의 예술화가 돋보이는 사례이기도 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보테가 그린' 조명이 사이키델릭한 디자인 감성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주류는 프리미엄 맥걸리 브랜드 복순도가가 협찬했다. 이렇듯 알다툼 '아트' 행사가 통 크게 투자하는 행보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럭셔리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없지만, 예술만큼 럭셔리에 희소성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드물지 않은가.

동시대적 감성과 영원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실 소수지만 어떤 브랜드들은 (흔히 말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도)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는 빼어난 경쟁 우위를 지니게끔 하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품고 있다. 일례로 마르셀 부루스트의 연작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부채론(Boucheron) 목걸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부채론이란 명품 브랜드의 오라로 감싸인 이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이는 나탈리 베그살라의 해석을 빌리자면, 브랜드 자체가 사회 문화적 지표이자 (적중 상황에서)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시대적인 신선한 감각까지 붙여넣는 아트 컬래버레이션이 정교하게 더해지면 전통과 살아 있는 감성, 그리고 예술에서 비롯되는 영원성(timeless)에 어느 정도는 다가가는 복잡다단한 정수를 두루 갖추게 되면서 거의 '무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후자는 동시대 아티스트들과의 좋은 협업은 브랜드로 하여금 전통에 입각한 영원한 빛을 발산하면서 '현대라는 유행의 흥분을 느끼게 하는 와줄타기의 묘미라고 표현하기도 했듯이 말이다. 현재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예술과 산업》이라는 기획전에서는 이런

듯 예술을 브랜드를 고양시키는 하나의 추동력으로 삼은 사례를 전시 콘텐츠로 선보였다. 10개국 15팀의 글로벌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로 자동차, 에너지 화학, IT, 음악, 패션, 영화,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협업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들이 등장한다. 그중 보드카라는 카테고리의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애플루트'라는 브랜드가 있다. 원래는 스웨덴 브랜드로 다국적 기업 페르노리카가 2008년 인수했는데,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팝아트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앤디 워홀의 얼굴이나 디자인이 담긴 보드카 병을 비롯해 데이미언 허스트, 백남준, 키스 해링 등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아티스트들과의 제품 디자인 협업부터 이를 활용한 감각적인 광고 캠페인까지 '모던 패키지'로 예술을 활용했다. 오죽했으면 경쟁하게 구름들이 '앤디 워홀이 없었다면 애플루트 보드카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다. 이번 울산시립미술관 전시에서는 2011년 프로젝트 '애플루트 블랭크(Absolut Blank)'의 작업 세계가 소개됐다. 당시 굿 와이브즈 앤드 워리어즈(Good Wives and Warriors)라는 영국 기반 듀오가 맡은 프로젝트로 비어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애플루트 보드카에 예술적 해석을 채워 넣는 작업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가로 2m, 세로 6m의 병 모양 대형 패널에 그림을 그린 작품이 새로 탄생했다.

'수평적 융합'으로 이뤄지는 크로스오버 협업의 매력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아티스트 협업도 인상적이다. 루이 비통과의 협업으로 명성 지저한 일본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미국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이리시(Billie Eilish)의 데뷔 앨범 《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에 수록된 곡 'You Should See Me in a Crown'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2019)인데, 도입 부분의 녹색 캐릭터는 빌리 아이리시가 직접 만들기도 했다. 이후 빌리 아이리시는 'My Future'(2020) 뮤직비디오 역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렇듯 시각 예술과 뮤지션의 만남이라는 계보에서 인상적인 사례는 얼터너티브 록 밴드 예세이어(Yeasayer)가 네 번째 앨범 《아멘 & 굿바이》(2016) 커버 작업에서 펼친 캐나다 출신의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알트메츠(David Altmejd)와의 협업이다. 음악 앨범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뮤지션의 색깔을 상징할 만한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예세이어가 오랫동안 작가로서 좋아했던 알트메츠에게 요청해 이뤄진 이 협업에서 작가는 곡의 가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을 일련의 조각으로 제작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소설가 마크 트웨인, 그리고 예세이어 밴드 멤버들의 얼굴을 본뜬 조각들이 부식되거나 파손된 채 앨범 커버 사진 촬영 무대를 채우고 있는 기괴한 이미지들이 발산하는 강력한 오라를 이븐 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젠론스타와 펜디의 만남을 보면 이중 간의 협업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같은 패션계에 속한 두 브랜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도 흥미롭다. 우리나라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이며 예술 작품으로 수놓은 공간 디자인이 돋보이는 쇼룸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 마케팅에서 발군의 솜씨를 보여준 젠론스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와 '젠론스타' 컬렉션을 내놓았는데, 러시아 아티스트 칼레타브로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는 듯 몽환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지닌 AES+F가 영상과 포스터 등을 아우르는 캠페인(2019)을 맡으며 시너지를 이끌 어냈다. 또 AES+F가 젠론스타의 아이웨어 라인업인 나노컬렉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생명의 순환》(2021)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영상 작업(싱글 채널 필름)도 이번 전시에서 상영되고 있다.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 단순히 광고 캠페인으로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토리텔링과 미학을 결합한 영상 작업을 알다툼 선보이고 있는데, 현대미술에 '진심인 브랜드로 수십 년에 걸쳐 작가들을 후원하고 협업을 진행해온 프리디는 이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로 꼽힐 만하다. 이번 《예술과 산업》 전시에서도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양푸동(Yang Fudong)과 협업해 완성한 '처음 맞는 봄'(2010)이 소개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우연히 과거 중국 왕조시대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을 1930년 상하이로 무대로 담았다. 프라다 제품들이 등장하지만 어색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 인식에 대한 부채를 시각화하면서 생각할 거리까지 제시하는 등 상업과 예술 사이를 묘하게 오가면서 풀어내는 양푸동의 솜씨가 발군이다. 예술과 산업의 결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내지는 않았지만, 상생의 시너지를 발산하는 창조적 지점이 궁급하다면 찾아볼 만한 전시다. 글 **고성연**



일상의 평범한 순간이든 특별한 기억이든 누구나 휴대폰으로 쉽게 이미지로 남길 수 있고,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진 예술'은 주목을 끈다. 그간 단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네모반듯한 프레임의 이미지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을 대하는 사진가의 시선과 미학, 철학이 응집된 고도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가을을 물들이고 있는 사진전 3선을 소개한다. 컬러 사진의 선구자 중 하나로 도시와 건축 풍경을 자신만의 회화적인 결로 담아낸 프랑코 폰타나전, 스스로 '무명'을 택한 채 평생을 사진과 함께하다가 사후 드러난 15만 장의 필름을 남긴 비비안 마이어전, 한국과 스위스의 젊은 사진가 그룹전이다.

<프랑코 폰타나: 컬러 인 라이프> 마이아트뮤지엄

자본 사진 애호가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뉴욕발 컬러 사진의 선구자 사울 레이터(Saul Leiter)가 있었다면 울가울에는 폰타나(Frantana)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프랑코 폰타나(Franco Fontana)의 미학이 기다리고 있다. 1933년생으로 90대에 접어든 그는 '흑백이 지배하던 20세기 중반 사진 미술의 생태계에서 컬러 사진의 미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출해낸 이탈리아의 사진 거장이다. 그저 자연이나 거리를 담은 풍경이나 마치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초현실적인 느낌마저 지니는 그의 작업 세계는 우리에게 삶의 풍경에서 색과 구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매혹적일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사진은 현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인데, 현실은 마치 대리석 덩어리 같아서 재료를 만들 수도, 미켈란

젤로처럼 피아터를 창조해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그에게 '컬러는 곧 '현실'을 가리킨다. 흑백이 이미 예술적 변형을 거쳤지만 컬러는 현실의 가을이기에 예술적 힘을 부여하려면 표현의 정체성과 고유함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정체성과 해석을 위한 고민 어린 실연을 끝없이 해왔기에 자신에게 '기적'이 통했다고 믿는다. 한국 최초 회고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그 같은 철학이 담긴 작품 1백22점과 더불어, 자신의 육신은 저를 아يا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을 생생하게 살아 기록해 도와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고 해맑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폰타나의 영상도 챙겨 보면 좋을 듯하다.



전시명 <프랑코 폰타나: 컬러 인 라이프(Color in Life)> 전시 기간 2023년 3월 1일~31일 홈페이지 www.myartmuseum.kr

1 서울 강남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지난 9월 30일 개막해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프랑코 폰타나: 컬러 인 라이프>전. 자연, 도시, 인물, 도로를 주 피사체로 삼은 렌즈 케임프, 아벤스카이프, 휴먼스케이프, 아스팔트 등 47개 색상으로 구성된 1백22점을 선보이고 있다. 2 FRANCO FONTANA © BASILICATA 1965 QWT 3 FRANCO FONTANA © Ibiza 1992 DUE A 4 FRANCO FONTANA © Los Angeles 2001 DAS *이미지 제공, 마이아트뮤지엄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그라운드스이스 성수

173cm의 큰 키에 미끈 체형, 무표정한 얼굴로 롤리폴릭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여성. 자신의 전형적인 자화상만이 아니라 80년 넘는 삶의 여정을 함께한 가리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낸 15만 장의 필름을 남긴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라는 인물은 사후에 '신화'가 된 인물이다. 그토록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생전에 다른 이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작업은 보모, 가정부, 강변인, 미국 뉴욕에서 오스트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미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는데, 무뎠고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사에 호기심이 많았는지 틈틈이 '세상'을 기록하는 사진을 찍는 일상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 비비안 마이어는 20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연히 사묘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영화감독이 그녀의 필름을 강제로 사들였고, 독특하고 신기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추적

해 결국 오늘날 전 세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 사진가 마이어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다. 로버트 프랭크, 다옌 아바스 같은 정평난 사진작가와 견주어지기도 하고 충분히 극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신드롬이라고 평하는 등 그녀에 대한 평은 엇갈린다. 또 머리 적 불우한 기억을 지닌 탓인지 주변인과는 거리를 유지했고 차갑거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얘기도 전해지지만, 적어도 비비안이 보모로 오래 일했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돌보던 갠스파르 집안 사람들은 자유롭고 찬란한 영혼으로 기억한다. 구형 시아로 보이는 개구쟁이 소년의 한쪽 눈, 눈을 가린 소녀의 얼굴, 가리를 지니는 평범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보노라면 사후에 대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이번 서울 전시에는 2백70점 이상의 사진과 함께 작가 육성이 담긴 오디오, 소품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명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전시 기간 2022년 11월 27일~12월 31일 홈페이지 groundseesaw.co.kr



1 뉴욕, 1954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c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2 개루아, 1955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c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3 '키아로', 1971년. ©Estate of Vivian Maier, Courtesy of Malcof Collection and Howard Greenberg Gallery, NY *이미지 제공, 그라운드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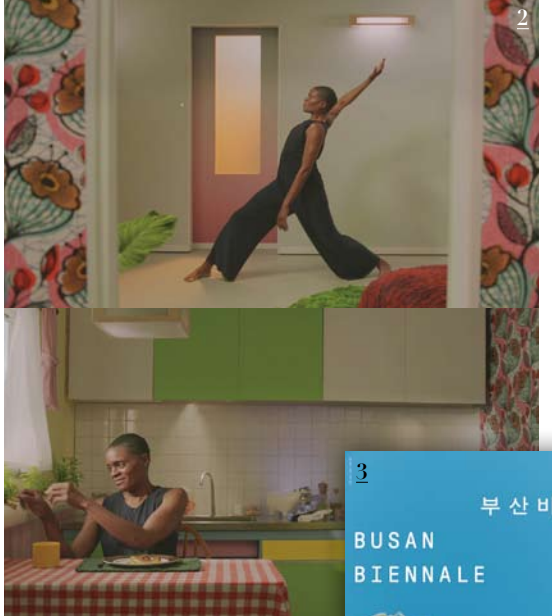
<Spaceless> 주한 스위스 대사관

173cm의 큰 키에 미끈 체형, 무표정한 얼굴로 롤리폴릭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여성. 자신의 전형적인 자화상만이 아니라 80년 넘는 삶의 여정을 함께한 가리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낸 15만 장의 필름을 남긴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라는 인물은 사후에 '신화'가 된 인물이다. 그토록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생전에 다른 이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작업은 보모, 가정부, 강변인, 미국 뉴욕에서 오스트리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미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는데, 무뎠고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사에 호기심이 많았는지 틈틈이 '세상'을 기록하는 사진을 찍는 일상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 비비안 마이어는 20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연히 사묘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영화감독이 그녀의 필름을 강제로 사들였고, 독특하고 신기한 그녀의 인생 여정을 추적

화석 콘크리트 건물 숲 사이로 한쪽 건축으로 특유의 멋스러운 정취를 풍기는 서울 종로구 송월동 주한 스위스 대사관. 1974년부터 머물던 자리에 새 건축물을 짓고 문을 연 지 벌써 3주년을 맞이한 이 공간은 '스위스 한옥'이라 불리며 동네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지만 때때로 전시장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스위스와 한국의 젊은 사진가들을 소개하는 그룹전 <Spaceless>를 열었다. 지난 가을 7천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며 호평받은 <숨수는 벽(Breathing Walls)> 사진전 기획을 맡았던 천영우 사진가 겸 교수가 다시금 기획을 이끌었는데, 스위스 로잔 예술 대학교(ECAL) 출신 작가들,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출신 한국 작가들이 참여했다. 플로리안 아모저(Florian Amoser), 알렉산드라 도텔(Alexandra Dautel), 정영호, 정지현, 김도준 등 8인이다. 이들은 도시의 공간과 디자인 환경의 변화 속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와 함께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드문 카메라, 3D 프로그래밍 등 첨단 도구를 적극 활용한 기법과 재구성의 미학이 돋보이는 작업 세계가 흥미롭다. 무료지만 사진 예약 필수다. 글 <고성연

전시명 <Spaceless> 전시 기간 11월 6일~12월 1일(목~일요일) 사진 예약 www.eventbrite.co.uk/e/spaceless-exhibition-tickets-422262397197

1 서울 송월동에 위치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Spaceless> 사진전 설치 모습. 한국과 스위스의 유명한 젊은 작가 8인의 작업 세계를 소개하는 그룹전이다. 2 플로리안 아모저(Florian Amoser), 'Aporitic Spectacle, Courgenay, #12(2017)(Large). 3 유니스 클루슈(Younès Klouche), 'Peripherique'(2020)(Large). *이미지 제공, 주한 스위스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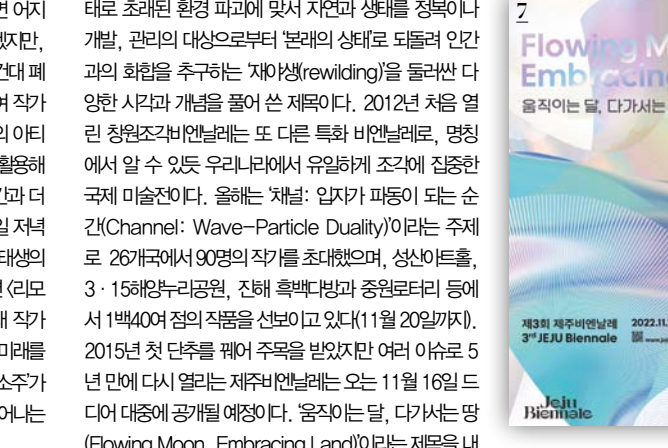
자연 속 영감 찾기, 비엔날레의 계절

우리네 짝수 해 가을은 비엔날레의 계절이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이자 규모 큰 문화예술계 행사인 비엔날레 일정도 꼬여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팬데믹 3년 차인 올해에는 대다수 비엔날레가 정상 궤도로 다시 진입한 모양새다. 원래 짝수 해에 열렸던 광주비엔날레는 2020년에 연기되는 바람에 지난해 봄 치러져 내년을 기약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산비엔날레와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여전히 짝수 해를 고수하고 있고, 지난 여름 시작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마지막 한 달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강릉에서는 울기를 처음으로 아트 축제가 열린다. 풍경을 벗 삼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창조적 영감을 얻는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 예술 기행'을 떠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신한 사진가 경험은 다루는데, 특유의 색채 감각이 영상에 잘 녹아들어 있고, 감쪽+발랄하면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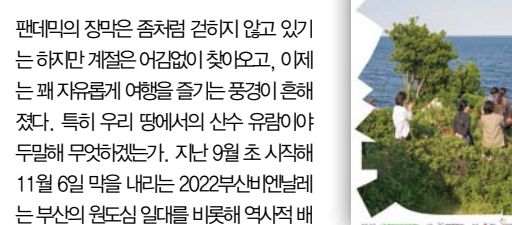
공주, 부산, 창원 등에 이어 강릉과 제주도 '미술 축제' 대열로

지난 8월 27일에 개막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야외 전시 공간인 공주 연마사자연미술공원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이했는데, 원류를 들여다보면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국내 최초의 자연 미술 운동인 '이투' 그룹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담론을 꾸준히 생산해오다가 한 이력을 지냈다. 10개국에서 2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이틀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또, 다시 야생(多眼 野生)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행태로 초래된 환경 파괴에 맞서 자연과 생물을 정복이나 개질, 관리의 대상으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인간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재야생(rewilding)'을 둘러싼 다양한 시기와 개념을 풀어 쓴 제목이다. 2012년 처음 열린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또 다른 특색 비엔날레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각에 집중된 국제 미술전이다. 올해는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Channel: Wave-Particle Duality)이라는 주제로 26개국에서 90명의 작품을 초대했으며, 성산아트홀, 3·15해안누리공원, 진해 흑백방과 중앙로터리 등에서 1백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11월 20일까지). 2015년 첫 단추를 꿰어 주목을 받았지만 여러 이슈로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6일 드디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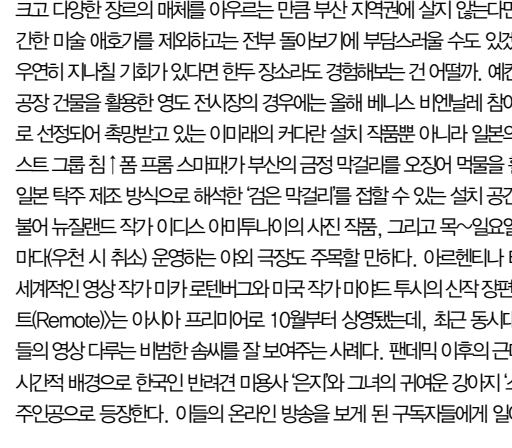


로부터 풍부한 놀이 문화를 보유했던 강릉의 역사와 삶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예술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강릉/연주' 江陵/連口 Tale of a City라는 제목을 택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연속된 문자처럼 이어지는 강릉의 공간과 풍경, 토착문화와 이주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 사물을 잇는 서사,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전문가의 연결을 뜻하는 다의성을 띠는 제목이다. 그래서 전시 기획자, 현대미술가, 비평가 개척자(신인원), 소설 요리아, 그래픽 디자이너, 인권 활동가, 도시 인류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노암 촘스키, 서부시장 예집, 서부시장 COC리온지, 고재현, 대추무어아트, 크리에이티브 1230, 여행자 플랫폼 강릉수월대 등 페스티벌 동선도 흥미롭다. 글 <고성연

1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이기도 한 이태희, 1968, 한국의 영도 전시장 대형 설치 작품 구멍이 많은 종장: 영도 바다 파도(2022). 2 미카 로렌토와 마요 투시가 만든 2022년 작 장편 영상 작품 <리모트(Remote)> 스틸 컷. © 미카 로렌토와 마요 투시, 이미지 제공, 작가와 허우재(렌트)사-Hauser & Wirth 3 2022부산비엔날레 포스터. 4 제1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GIAP) 동선도를 담은 지도. 5 피리니사(문화재단)의 주제를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리는 제1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의 공식 포스터. 6 5년 만에 열리는 제주 비엔날레 주제 중 하나인 제주현대미술관 외관. 7 1,6 Photo by SY KO 7은 11월 16일 개막할 예정인 제3회 제주비엔날레 포스터.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를 내세웠다. 내년 2월 12일까지. 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출품한 강릉생각의 작품 유기적관계 - 한 평생을 탐구로부터 시작된 시간여행. 9 또, 다시 야생(多眼 野生)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포스터 * 2~5, 7~9 이미지 제공, 각 비엔날레



팬데믹의 징검다리 역할도 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이제 패 지루하게 여행을 즐기는 풍경이 흔해졌다. 특히 우리 땅에서의 산수 유람이야 두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 9월 초 시작된 11월 6일 막을 내리는 2022부산비엔날레는 부산의 월드컵 일대를 비롯해 역사적 배경 속에 다국적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품은 매력적인 현대미술 관전지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울스도에 지리한 부산현대미술관주 전시장을 위시해 부산항 제1부두, 초량, 영도 등 네 곳에서 펼쳐져 수준 높은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도시 기행도 할 수 있게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왔다. 글로벌 행사 25개국 64팀/80명 참여, 2백39점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장르의 매체를 이루는 만큼 부산 지역권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간한 미술 애호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돌아보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우연히 지칠 기회가 있다면 한두 장이라도 경호해보는 건 어떨까. 예전과 폐공장 건물을 활용한 영도 전시장의 경우에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선정되어 촉망받고 있는 이태희의 카타리 설치 작품뿐 아니라 일본의 아티스트 그룹 칭! 품 프롬 스피메가 부산의 금정 막걸리를 오징어 먹물을 활용한 일본 탁주 제조 방식으로 해석한 검은 막걸리를 접할 수 있는 설치 공간과 더불어 뉴질랜드 작가 이다스 아이투(아이)의 사진 작품, 그리고 목~일요일 저녁 마다우천시 최상 운영되는 야외 극정도 주목할 만하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세계적인 영상 작가 마카 로렌토와 미국 작가 마요 투시의 신작 장편 <리모트(Remote)>는 아미카 프리마로 10월부터 상영됐는데, 최근 동시대 작가들의 영상 다루는 비범한 솜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팬데믹 이후의 고민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국인 관객이 미용사 '은자'와 그녀의 귀여운 강아지 '소쿠'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온라인 방송을 보게 된 구독자들에게 일어난





Color O'Clock

평범한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다채로운 매력의 컬러 다이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슈퍼 다이얼 워치 뛰어난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정밀한 세팅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우아한 오벌형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디크 블루 컬러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을 장착했다. 배경을 따라 총 4,077점에 달하는 2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프롬 시트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장인의 탁월한 금세공 기술로 장수적 효과를 다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또한 화려하게 빛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파워풀 포제션 워치 자유롭게 회전하는 포제션 주얼리 컬렉션 고유의 미학을 워치메이킹의 세계에 전파했다. 총 1,477점에 달하는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회전 배경이 유려하게 움직이며 손목 위에 찬란한 빛을 선사한다. 지름 34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핑크 마디오브릴 다이얼을 장착하고 동일한 컬러의 엘라기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사랑스럽다. 인하우스 쿼츠 무브먼트 569P로 구동한다. 2천7백만원대. 문의 1668-1874

카르네이션 맨더 카르네이션 워치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려며 블루와 네이비 컬러로

이러는 그래픽이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지름 22x30mm의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모델로 크라운에는 블루 합성 스피넬 1개, 베젤에는 총 0.24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했다. 정교한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877-4326

블리시 다바스 드림 주얼리 워치 로마의 카리칼라 욕망 묘지인 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유려한 곡선형의 부채꼴 모티브와 다양한 컬러 젤스톤을 결합한 다바스 드림 컬렉션. 사치를 풍미한 다바스는 물론 동시대 여성을 영혼하는 의미를 담았다. 총 1,087점에 달하는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지름 33mm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랙 오팔 다이얼을 더해 각도에 따라 신비로운 빛을 발산한다. 다이얼에는 아워 마커를 대신하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세팅했다.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 또한 총 1,327점에 달하는 9백4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다. 8천8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오메가 씨마스터 아이우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하우스의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씨마스터 컬렉션의 2022년 신제품.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이얼이 특징이다. 지름 34mm의 스틸 케이스에 장중한 라벤더 컬러 선-브라시드 다이얼은 브라스 소재로 래커 마감 처리했다.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하며, 시와 분을 가리키는 핸즈 및 바 인덱스, 오메가 로고 모두 화이트 골드 소재로 재질했다. 뛰어난 항자성을 갖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으로 구동한다. 8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론진라 그랜드 클래식 워치 하우스 특유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상징하는 라그랑드 클래식 컬렉션 신제품. 심플한 오픈지 칼리버 다이얼, 동일한 색상의 엘라기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확실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지름 29mm, 두께 4.5mm의 긴밀한 스틸 케이스에 총 0.369카트에 달하는 4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0m 생활 방수 가능한 쿼츠 무브먼트 L420으로 구동한다. 4백30만원대. 문의 02-3479-1940 라퀸에다터 **이제이**



OPEN THE WONDER

SWAROVSKI

Modern and Romantic

오메가의 대표 컬렉션 '드 빌 트레저' 사이즈는 줄이고, 스트랩엔 우아함과 로맨틱함을 장착해 '드 빌 미니 트레저'로 새롭게 태어났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DE VILLE MINI TRÉSOR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대담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26mm 사이즈의 새로운 드 빌 미니 트레저(De Ville Mini Trésor) 컬렉션을 선보이는 오메가. 오메가의 트레저 컬렉션은 1949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 당시 트레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설적인 30mm 칼라바를 사용했고, 2017년에는 21세기에 어울리는 간결한 트레저로 재해석해 클래식 타임피스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2022년에는 사이즈를 줄여 26mm의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번 컬렉션은 오메가만의 합금 소재인 '18K 문사인™' 골드를 사용한 골드 라인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트왈 드 주이 라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18세기 베르사유 남동부에서 유래한 프린트 페브릭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트왈 드 주이를 선보여 미니 트레저 컬렉션을 다채롭게 채웠다. 손목을 두 번 감는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스틸 워치도 포함된 것. 또 이번 컬렉션의 모든 시계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드 리퀴드 세라의 소재의 오메가 플리워를 새긴 3시 방향의 눈부신 트레저 크라운이 특징. 케이스 백에는 'Her Time' 패턴으로 오메가만의 특별한 디테일을 더했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윤자경

(왼쪽부터 차례대로) 드 빌 미니 트레저 쿼츠 26MM 문사인™ 골드 케이스, 브레이슬릿, 핸즈, 이워 미카와 실크 패턴 디자인까지 오메가만의 합금 소재로 제작해 손목 위에서 고급스러운 빛을 발산한다. 배터리를 극대화하는 '볼 라이프' 기능을 갖춘 쿼츠 무브먼트로, 내부에는 자전사 처리해 규함에 강한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했다. 3천800만원. 드 빌 미니 트레저 쿼츠 26MM 트왈 드 주이 자구에 대한 오메가의 열광을 보여주는 레드 플로랄(Red Flora) 칼라의 스트랩이 손목을 우아하게 연출한다. 또 케이스 측면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더욱 섬세하게 빛난다. 5백80만원.



(위부터 차례대로) 드 빌 미니 트레저 쿼츠 26MM 문사인™ 골드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워치. 오프 화이트 그랑 피에-펠 소재 다이얼과 그 위에 전사 처리한 로마 인덱스, 블랙 핸즈, 골드 케이스의 매칭이 패셔너블함을 선사한다. 또 실크 패턴이 새겨진 문사인™ 골드 메시 브레이슬릿과 울링 클래식 스프링 장착해 편안한 착용감까지 누릴 수 있다. 2천9백90만원. 드 빌 미니 트레저 쿼츠 26MM 트왈 드 주이 해왕에 대한 오메가의 유산을 기념하는 블루 씨(Blue Sea) 칼라의 더블 투어 페브릭 스트랩을 장착한 워치. 오프 화이트 그랑 피에-펠 소재 동형 디자인에는 다이아몬드 플리싱 처리한 로즈도금 핸즈와 블루 칼라로 전사 처리한 로마숫자를 적용했다. 5백80만원.

Power of Stone

아름다운 스톤을 다루는 힘, 장인 정신에 바탕을 둔 금속 세공 기술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지닌 주얼리를 만드는 포멜라토의 대표 링과 네크리스. 곧 다가올 연말에 미리 준비하는 기프트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포멜라토 이코니카 더블 밴드 링

이코니카 컬렉션의 더블 밴드 링은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포멜라토만의 방식으로 유려하게 2개의 밴드를 교차해 파워풀한 면모를 보인다. 포멜라토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로 2개의 둥근 골드 링이 고리로 결합되어 세련된 볼륨감과 과감하고 대담한 곡선을 강조한 것이 특징. 세 가지 버전으로 완성한 이 링은 로즈 골드 밴드에 각각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를 파베 세팅해 다른 매력을 자랑하며, 매듭 부분이 위로 오도록 해서 착용하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 다양한 연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부터)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더블 라인 밴드에 총 0.6캐럿, 36개의 루비를 세팅해 밝다는 사랑의 열정을 떠올리게 한다. 가격 미정.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더블 라인 밴드에 총 0.4캐럿,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이코니카 링 가격 미정.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더블 라인 밴드에 총 0.4캐럿, 36개의 무드라운 그린 컬러 에메랄드를 세팅해 화창과 평화를 약속하는 의미를 지닌 이코니카 링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포멜라토 누도 펜던트 네크리스

스톤의 다양성과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하우스 시그니처 디자인인 누도 컬렉션의 네크리스다. 포멜라토의 독창적인 클레시드라 컷(clessidra cut)으로 완성했는데, 이 컷팅은 1개의 정사각형 또는 2개의 정사각형을 앞뒤로 결합한 뒤 중앙에 골드 밴드를 둘러 스톤 색조에 깊이감을 더하는 기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스톤의 매력을 극대화해 하루하루로도 강렬한 포인트와 개성을 표현한다.

(왼쪽부터) 18K 로즈 골드에 12.9캐럿 스카이 블루 토파즈 1개가 아름답게 빛나며, 총 0.1캐럿, 10개의 다이아몬드로 우아하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18K 로즈 골드에 11.4캐럿 화이트 토파즈 1개를 세팅해 존재감을 자랑하며, 총 0.1캐럿, 1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한 누도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정민**

Time of Success

클래식하고 모던한 매력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남성의 머스트 해브,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IWC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 지름 41mm의 광택탄 케이스에 슬림한 베젤까지, 드레스 워치로 제각인 사이즈를 갖췄다. 아틀라게 이라비아숫자와 날렵한 나뭇잎 모양 핸즈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느낌을 준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 골드 핸즈와 아틀라게를 적용했으며, 심플한 블랙 알리케이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IWC 자체 제작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1백만원, 문의 1877-4315

에거 르클레르 마스터 울트라 핀 파워 리저브 깔끔하고 모던한 라인과 지름 39mm의 스틸 케이스가 돋보이며, 울트라 신 디자인으로 손목에 편안하게 착용한다. 다이얼에는 2개의 컴플리케이션이 조화롭게 위치하며, 날짜, 시·분, 파워 리저브, 초음 가리킨다. 에거 르클레르 칼리버 938로 작동한다. 1천3백98만원, 문의 1877-4201

블랑팡 발루레 레트로그래이드 스텔 세컨드 여러 겹으로 얹힌 반투명한 그레이톤 라우워 비교 불가능한 깊이감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기호세 오일핀 다이얼이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개성을 더하는 워치. 지름 40mm 사이즈에 울트라 슬림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실용성까지 갖췄다.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무브먼트 칼리버 766을 탑재했다. 2천5백88만원, 문의 02-310-5295

브레게 클래식 5177 클래식한 정수를 보여주는 디자인의 워치. 지름 38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드레스 워치에 알맞은 사이즈를 갖췄다. 브레드 시그니처인 블루 스틸 핸즈를 매치했으며, 스피드 핸즈에 화이트 칠을 더해 세련함과 유용성이 돋보인다. 장인 정신이 담긴 그립 피 다이얼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더한다. 2천9백만원, 문의 02-3479-1008

몽블랑 스타 레거시 오토매틱 데이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미네르바의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컬렉션으로 조오뮴 형태의 케이스에 안파 모양 크라운, 나뭇잎 모양 핸즈가 특징이다. 지름 39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오토매틱 칼리버 MB24.01이 동력을 전달하며, 중앙에 시간, 분, 초를 표시하는 핸즈와 6시 방향 날짜창이 위치한다. 3백25만원, 문의 1877-5408

쇼파드 L.U.C 컬렉션 워치 화이트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이루어져 절제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드레스 워치의 정수를 선보인다. 우아한 매력을 은근히 표현하는 디자인과 사이즈가 특징으로 지름 40mm에 울트라 신 케이스를 갖췄다. COSC 크로노미터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다이얼 아래 스텔 세컨즈를 은근하게 매치해 실용성을 높였다. 1천3백55만원, 문의 02-6905-3390

바세롤 몬스터핀 패트리오니 매뉴얼 와인딩 특유의 매끈한 바스너형 케이스와 볼록한 둥형 다이얼 및 사파이어 글라스, 캔버링 인레스와 반구 형태로 양각 처리한 마스트 트랙까지, 모든 부분이 절묘한 원형 실루엣을 이루는 워치로 지름 40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매트한 화이트 톤 다이얼은 특유의 간결한 우아함과 클래식한 매력을 더했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400을 탑재했다. 2천만원,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정민**

Belle Époque Reel

이탈리아에서 수공예로 섬세하게 제작하는 예술 작품과 같은 주얼리, 다이아니아에서 새로운 컬렉션 '벨 에포크 릴'을 소개한다.



이탈리아 주얼리의 전통과 장인 정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1백여 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 다이아니아.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최상의 주얼리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건 3대에 걸쳐 다이아니아 패밀리에 계승된 독보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다이아니아 가문의 후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얼리 제작 과정과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주얼리에 대한 열정과 감각을 지니게 되었다. 1924년, 창립자 엔리코 다이아니아가 이탈리아 주얼리 전통의 중심지인 발렌차 지방에 설립한 금세공 장인 지역에서 다이아니아의 문을 열었다. 당시 그는 뛰어난 금세공 기술력으로 귀족 가문에 하나뿐인 주얼리를 제작해주며 이름을 날리 시작했다. 특히 그만의 세련된 기품을 표현하는 세공 실력은 세공 장인으로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1934년 가업을 이어받은 엔리코의 아들 다이아니노 다이아니아는 산업화 시기에 발맞춰 사업을 확장해 체계적인 디자인 연구와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이아니아의 전문성을 더욱 성장시켰다. 무엇보다 주얼리 전체 컬렉션을 편리하게 카탈로그화했고, 가격을 안정화해 구매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1990년대 초반에 사업을 물려받은 다이아니아의 3대 후손 실비아, 귀도, 조르조도 삼 남매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확장했다. 다이아니아 작품의 우수성은 소피아 로렌, 사룬 스톤, 톨다 스윈턴, 제니퍼 애니스톤, 귀네스 펠트로, 브래드 피트 등 수많은 스타들의 찬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왕실, 그리고 워치 & 주얼리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크 네크리스의 십자가처럼 움직임이 반영했으며, 필름의 릴(reel)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벨 에포크 릴 라인의 제품 안에 있는 원과 직사각 형태는 소설 피드에서 볼 수 있는 영상처럼 무한히 돌아가는 지속적인 모습을 추상적으로 재현한 것.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링, 네크리스, 이어링과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니아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철학으로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트렌드세터에게 인정받는 새로운 형태의 주얼리다. 2021년부터 다이아니아의 코리아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나는 이번 새로운 컬렉션 '벨 에포크 릴'을 착용해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보였다. 문의 02-515-1924 에디터 **윤지영**

1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얼링,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반지 가격 미정, 2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체인에 달린 다이아니아의 시그니처 D 로고가 특징. 가격 미정, 3 벨 에포크 릴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소재에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매칭하기 좋은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필름의 릴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담은 주얼리

'벨 에포크(Belle Époque)'는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라는 뜻이다. 19세기 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기간을 이르며, 정치적 격동기가 끝난 뒤 경제적 풍요와 번창한 예술, 문화를 누리던 시기다. 금세공 장인이자 다이아니아의 창립자 엔리코 다이아니아는 찬란했던 벨 에포크 시대의 황홀함과 낙천주의에 찬사를 보내며 동명의 벨 에포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새롭게 선보이는 '벨 에포크 릴(Belle Époque Reel)'은 기존 벨 에포크 컬렉션의 혁신적이고 기하학적이면서도 움직임을 더한 디자인에서 더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한 결과물이다. 다이아몬드와 화이트·옐로·핑크 골드로 이루어진 제품들은 벨 에포

Power Recovery

샤넬 스킨케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블리마지 라인.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샤넬 연구소의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15ml
6925천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누 40ml 75만5천원,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림
50ml 68만원.

진귀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가 선사하는 수블리마지 파워

무심코 마주한 겨울 속, 푸석한 피부결과 생가리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마주했다면 지금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 칙칙한 안색을 맑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면, 샤넬의 수블리마지 라인을 주목할 것. 수블리마지 라인의 중심에는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라니폴리아가 있다. 샤넬 연구소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생애 주기인 성장, 개화, 열매 맺기, 열매 익기의 각 단계에서 피부에 미치는 효능을 밝혀내 활성 성분으로 창조했다. 꽃과 열매에서 추출한 고농축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활성 성분은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고 피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진귀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가 등뿔 담긴 수블리마지 라인을 면밀히 알아볼 차례. 우선 우리에게 고성능 하이엔드 크림으로 가장 익숙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림은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모든 활성 성분을 하나의 포몰리에 담아낸 크림이다. 또 바쁜 현대 여성을 위한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또한 준비되어 있다.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누는 자는 동안 피부 분연의 개선 기능을 강화해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숙면을 취한 것처럼 매끈한 피부로 회복시킬 수 있다. 바르는 순간 워터리한 텍스처에서 싹뚫한 오일 포몰리로 바뀌어 실카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마지막 단계인 고농축 회복 트리트먼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의 효과는 더욱 놀랍다. 피부에 닿자마자 녹으면서 섬세하고 온온한 막을 피부에 씌워주면서 강력한 피부 리페어 효과를 발휘하는 것. 특히 새로운 스킨케어 추출물은 피부 분연의 힘을 강화해 생기 잃은 피부에 활력을 되찾아준다. 새로 태어난 듯한 피부로 탈바꿈하고 싶다면 샤넬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로 스페셜한 케어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에디터 윤자영

OLAPLEX

단 한 번 사용으로도 놀라운 효과!

올라플렉스만의 독자 성분인 비스-아미노가
전 제품에 함유된 혁신적인 헤어케어 브랜드

비스-아미노는 모발 속 가장 깊은 부분에 작용하는 혁신적인 올라플렉스만의 독자 성분

올라플렉스는 비스아미노에 의한 본드 빌딩 특허 기술로
헤어케어 시장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

본드빌딩은 비스-아미노 성분으로 모발 깊은 곳에 있는 끊어진 결합을 이어주는 기술

온라인 검색어 1위 브랜드 '올라플렉스'

2021년 영국/미국 화장품 조사플랫폼 코스메티파이(COSMETIFY) 발표
헤어케어부문 가장 검색이 많은 브랜드로 조사



공식 수입 판매처 : (주)씨이오인터내셔널 TEL : 02.3443.6551, www.olaplex.kr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전국 시코르 매장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AT CHECK

이제 막 도착한 2022 겨울 히트 코트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 sung hyun



울 소재의 그레이 싱글브레스트
해링본 코트 1백29만원 **골든구스**.
포켓 디테일 데님 셔츠 92만원 **리바이스**.
와이드 데님 팬츠 가격 미정 **셀윈스**.
실버 컬러 큐빅 부츠 46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메탈 글라스 스트라스
소재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모헤어 소재의 패턴 코트 가격 미정 **드리스
반노튼**. 폴리아미드 소재의 바이올렛 컬러
카디건 64만원, 버진 울 & 라센 소재의
바이올렛 컬러 스카프 46만원 모두
일크. 카프 스킨 소재의 브라운 컬러 부츠
3백16만원 **루이 비통**. 크리스탈 장식 나파
가죽 초커 가격 미정 **마우 미우**.



울 소재의 화이트 칼라 더블브레스트 코트, 울 소재의 플리워 디테일 화이트 니트 모두 가격 미정 **블루마린**, 라인스톤 장식 미디스카트 3백55만원 **프리다**, 가죽 소재의 화이트 칼라 롱부츠 가격 미정 **레이첼 콕스**, 이크릴 & 글라스 소재의 아이링 가격 미정 **드리스 반노트**.



울 소재의 네이비 칼라 오버사이즈 코트 1백18만원 **인크**, 인타르시아 케사미어 플로 셔츠 2백25만원, 레더 소재의 버건디 칼라 쇼츠 가격 미정 모두 **미우 미우**, 레더 니용이 부츠 3백35만원 **바버리**, 진주 장식 드림 아이링 가격 미정 **주미림**.



바진 울 소재의 브라운 컬러
 더블브레스트 코트 3백만5천원 **토즈**,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의 브라운 컬러
 니트 톱 32만8천원 **매종 미네**, 화이트
 컬러 와이드 팬츠 가격 미정 **막스마라**.

코듀로이 소재의 크림 컬러 싱글 오버코트
 69만8천원, 코듀로이 소재의 크림 컬러
 와이드 팬츠 34만8천원 모두 **헵토**,
 아스트로 블루 컬러 린 니트 저지
 탱크 톱 1백30만원, 레더 소재의 브라사드
 가죽 핏포스 1백65만원 모두 **프라다**,
 허트 모양의 메달 이어카트 가격 미정 **아이**.



코듀로이 소재의 크림 컬러 싱글 오버코트
 69만8천원, 코듀로이 소재의 크림 컬러
 와이드 팬츠 34만8천원 모두 **헵토**,
 아스트로 블루 컬러 린 니트 저지
 탱크 톱 1백30만원, 레더 소재의 브라사드
 가죽 핏포스 1백65만원 모두 **프라다**,
 허트 모양의 메달 이어카트 가격 미정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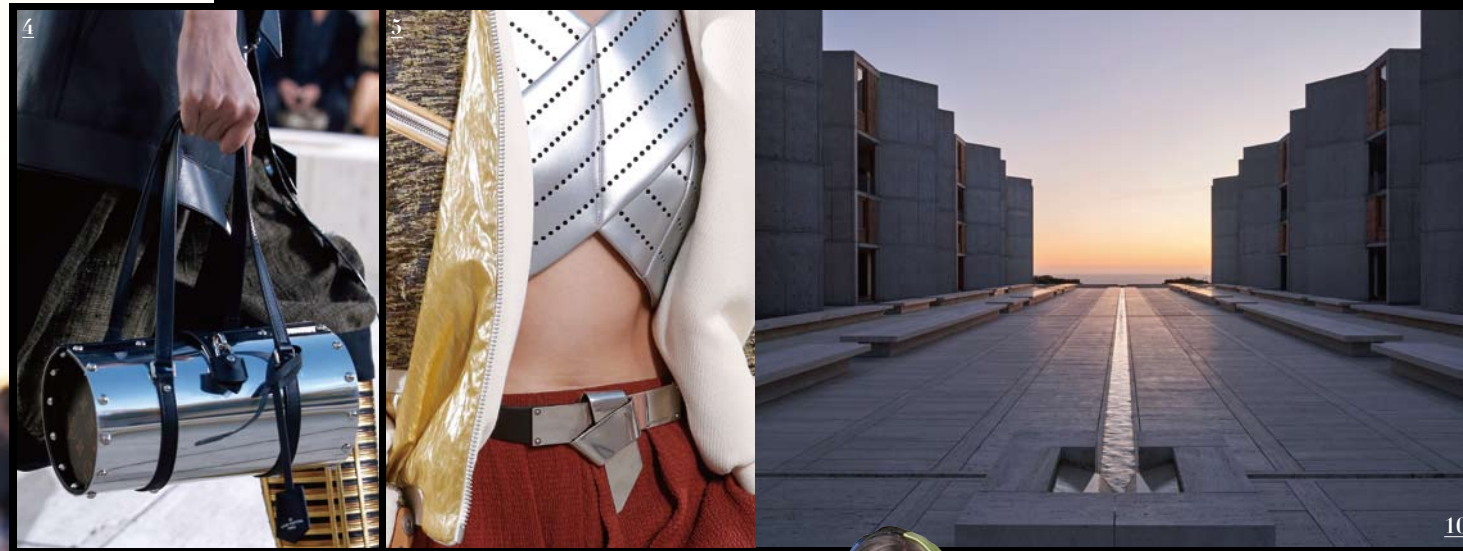
코튼 & 비스코스 소재의 더블 멜란지 울 코트 5백2만원, 램 스킨 소재의 브라운 컬러 사이니 가죽 벨트드 코트 8백14만원, 곡선형 레그 디테일의 코튼 & 비스코스 소재 더블 멜란지 울 팬츠 1백84만원, 레더 소재의 부츠 가격 미정, 메탈 소재의 드롭 이어링 1백4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 블랙 컬러 터틀넥 톱 가격 미정 **셀린느**.

울트워드 & 울 퍼 소재의 핑크 컬러 코트, 캐시미어 소재 플로우버, 울 & 캐시미어 소재 스카프, 캐시미어 소재 삭스, 메탈 글라스 스트라스 소재의 네크라스, 메탈 스트라스 트워드 소재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모스트라 에리제인 펌프스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

헤어 박은홍
메이크업 배재석
모델 Arisha Kriukova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샤넬 080-200-2700
보태가 배너 02-3438-7682
루이 비통 02-3432-1854
버버리 080-700-8800
셀린느 02-549-6631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218-5331
마우 마우 02-541-7443
블루마린 02-6905-3447
골든구스 02-519-2937
아이미 02-6956-8782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2143-1792
막스마라 02-511-3935
양크 02-512-9711
렉토 1522-7720
드리스 반 노트 02-3479-1796
매종 미네 070-4223-2288
리바이스 0507-1401-8890
주미림 joomilim.com
레이첼 콕스 02-6215-0070





Empire of the sun

적양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등지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강인한 여전사들이 힘 있게 런웨이를 행진한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옷과 빛, 신이 만드는 태양과 건축물의 완벽한 조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쇼가 시작했다.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2023 루이 비통 여성 크루즈 컬렉션.

태양, 바다와 맞닿아 대화를 나누다
 마치 시대 배경을 알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낯설지만 아름다운 경험.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2023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시작되자마자 모든 관객을 사로잡았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라호이에 있는 스크 생물학 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는 크루즈 쇼가 패션쇼인 동시에 건축적인 여정이길 원하는 그의 희망을 실현해준 완벽한 장소였다.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 1901~1974)의 작품이자 생물 의학 연구소인 이곳은 수도원과 예술적인 휴양지가 오묘하게 결합되어 고요함과 성찰의 장소인 동시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은신처 같은 은밀함을 지니고 있다. 루이스 칸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연구소를 1965년에 완성했는데, 침묵과 빛의 건축가라는 명성답게 빛을 활용하기 위해 태양을 건물 중심에 놓았다. 일출 시간 동안 태양은 중앙 분수의 정직한 축 안에서 완벽한 건물의 프레임을 완성한다. 햇빛과 반짝이는 물의 조화는 모든 것을 황금



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닿는 모든 것은 금빛으로 변한다. 바로 이 태양의 마법에 걸리는 시간에 열린 크루즈 컬렉션을 보는 관객들은 기꺼이 그 마법 속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선보인 의상들 역시 태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옷들이 빛과 사람 사이에서 그 빛을 반사하며 존재감을 발휘하기를 원했다. 시간적인 절정으로 향하는 태양과의 조화. "이번 크루즈 쇼의 특별 게스트는 태양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쇼의 첫 번째 파트는 강렬한 태양과 사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과장된 실루엣의 구조적인 스타일과 몸을 낙담히 감싸는 유동적이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 때론 단단한 여전사, 때론 우아한 여신의 카리스마를 표현했다. 중세의 기사와 성직자를 아우르는 서사적인 스타일이라고 할까, 빛을 반사하고, 불레로와 같은 상의는 빛나는 날개를 연상시켰다. 또 바다, 모래, 절벽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다운 프린트 의상들은 자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에 기술적 요소를 가미해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천연 소재에 환상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니콜라 제스키에르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스크 연구소에서 영감받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사진으로 프린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표면감을 변형해 때론 해진 듯 반들반들하게, 때론 시간이 지날수록 신화 된 느낌으로 변하는 유니크한 트리트, 시린, 가죽, 메탈릭 데님 등을 창조했다. 물론 이 모든 시도가 '빛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액세서리 역시 빛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막 부츠, 스니커즈, 물 향기가 섞인 하이브리드 슈즈를 선보였는데, 부츠와 신발에는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축적하는 작은 태양전지 판같이 빛을 반사하는 밴드가 장식되어 있었다. 가변에 대한 금속 장식은 태양 빛 아래서 더욱 반짝이며 눈이 부시게 만들었다. 태양, 빛, 사막 지평선과 선셋으로 붉게 물든 미지의 사막에서 잠시 태양의 유목민이 된 느낌이 들었다. 2023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여정이었다.

1-3 빛을 반사하며 태양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2023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 의상들. 4, 5 갈라투아 연상시키는 소재를 액세서리에 활용했다. 6-9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등장할 법한 강인하고 매력적인 의상들. 10 쇼가 열린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라호이에 위치한 스크 생물학 연구소. 빛과 침묵의 구조물이 선셋과 아우라처럼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11 강동과 강이 문명을 느끼게 했던 유목 로렌 의사. 여성용품 부직용으로 두 다리를 잃은 후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착용하지 않고 모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12, 13, 14, 15, 17 다양한 실루엣과 파격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 런웨이 의상들. 16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장인이자 유주, 배우나.

13

16

17

Sustainability Utopia in Firenze

이탈리아는 구찌의 본사 오피스부터 팩토리, 이노베이션 센터까지 하우스의 핵심이 공존하는 곳이다. 특히 피렌체는 구찌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다. 카셀리나(Casellina) 지역에 위치한 본사부터 이노베이션 센터 '아트랩', 글로벌 디지털 고객 서비스 센터 구찌 9, 예술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져 고유의 경험을 선사하는 구찌 가든이 모여 있는 피렌체를 다녀왔다. 그중 구찌의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아트랩을 소개한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아트랩

구찌는 과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탐구하고 혁신하고자 한다. 아트랩은 구찌의 그 모든 노력을 집약된 공간이다. 구찌의 유서 깊은 본사 근처, 이탈리아 피렌체 카셀리나(Casellina) 지역에 위치한 이 아트랩은 디자이너의 꿈이 제품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즉 구찌의 모든 레더 제품과 슈즈의 프로토타입

과 샘플을 만드는 사내 기관과 제품 제작 공정 및 기술에 혁신을 가하는 실험 센터까지 갖춘 최초의 장소인 것. 아트랩은 2018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37,000m² 면적의 공간에서 9백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한다. 아트랩의 주 활동은 핸드백, 러기지, 레더 소품 및 벨트 등 모든 레더 제품, 남성 및 여성 슈즈의 프로토타입과 샘플 제작의 모든 과정을 자체 진행하는 것이다. 또 신소재와 금속 부자재, 포장재를



연구하는 R&D 연구소를 갖추었으며, 인공 기후실이나 물리 및 화학 실험실 같은 테스트랩에서는 제작한 샘플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끊임없이 진행한다. 슈즈 개발을 위한 구두 꼴과 힐 천문 내부부서, 액세서리 전문 부서는 물론 구찌의 시그니처가 된 대나무 손잡이 소품을 위한 공예 개발실인 '뱀부 람파지'도 갖추었다. 구찌에서 선보이는 모든 제품에 대한 사전 디자인 작업은 물론 소재 개발, 소재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부터 내구성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아트랩인 것. 나아가 구찌 직원들이 공장과 공급망에 있는 동료들과 협력해 기술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서의 공간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구찌의 지속가능성 실천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현장이기도 하다.

혁신과 전통이 만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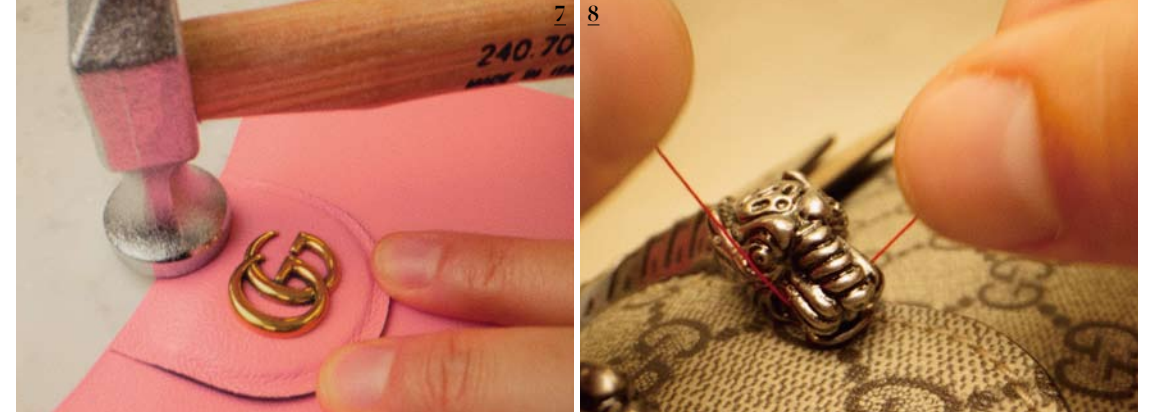
구찌에서 아트랩을 만든 것은 하우스의 헤리티지와 전통을 지키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 또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루기 위함이다. 공예 기술과 장인 정신에 대한 구찌의 헤리티지는 컬렉션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구찌의 전략은 헤리티지를 지킬 수 있는 장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나아가 럭셔리 세계에서 구찌가 남긴 유산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기미한 제조 노하우 보전에 힘쓰는 것. 아트랩은 이러한 기술, 노하우, 경험을 전수하는 동시에 구



찌의 공예와 생산 공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찌 에콜 드 라무르(Ecole de L'Amour)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그 예다. 이곳에서는 고유의 교육 경험을 통해 전통을 각색하고 하우스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결집한다. 레더 제품 디자인 및 생산 전 과정을 교육하는 공예 학교부터 구찌 팩토리에서 격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특정한 레더 제품 생산 작업에 특화된 '프로덕션 오퍼레이터'를 양성하는 공장 학교, 구찌의 다양한 부서 및 구찌 팩토리 직원들에게 특정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내부 과정인 기술 아카데미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는 전문 장인과 매니저, 은퇴한 구찌의 옛 동료들이다. 모두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으로서 럭셔리 패션의 중심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201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8백 명 이상이 구찌 에콜 드 라무르에서 교육받았다. **지속 가능성 실천과 공정이 한데 엮여 제품으로 완성되는 현장**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는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구찌 아트랩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곧 사고방식을 뜻한다. 아트랩에서 진행되는 제조 공정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CSR 부서와 지속 가능성 부서, 기술 및 R&D 부



1 피렌체 카셀리나(Casellina) 지역에 위치한 구찌 아트랩 외관. 2 구찌 아트랩에 들어서면 로비에 보이는 나선형 계단. 3 구찌 아트랩 내부. 4 구찌 에콜 드 라무르(Ecole de L'Amour)의 일련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5 재키 백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주는 장인의 손. 6 브랜트 헤리티지인 뱀부 제작 공장. 7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가죽 공정. 8 버클 제작 공정. 9 리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된 모자. 10 구찌에서 새로 개발한 지속 가능 소재 데메트라(Demetra)로 제작된 슈즈.

서 등 다양한 팀이 개입한다. 이 팀들은 구찌의 포트폴리오에 지속 가능한 소재를 편입시키고 제품 개발에 좀 더 순환적인 공정을 도입하는 등 폐기물과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구찌는 매일같이 노하우와 헤리티지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제품과 소재가 고객의 요구와 도전 과제에 부응해 발전하도록 하는 동시에 품질, 내구성, 순환성, 심미성까지 놓치지 않는다. 구찌는 아트랩을 통해 품질과 내구성 시험 과정을 하우스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하며 제품과 관련된 방향으로 테스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협업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찌의 활동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원칙이 담겨 있다.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서도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계속 도입해 구찌 제품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순환성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고 순환적인 소재를 선택하도록 제품을 디자인

한다. 이는 제품의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가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레더 폐기물 감소를 위해 알맞은 크기로 재단하는 스크랩리스(scrapless) 공정부터 레더와 섬유 잔여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탈리아 전역의 사회 협동조합과 비정부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업사이클을 주도하는 구찌 업(Gucci Up) 프로젝트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품 부문에서는 2020년에 출시한 첫 구찌 씨클러 라인 컬렉션인 구찌 오프 더 그리드(Off the Grid) 컬렉션이 있는데, 이는 재생 소재와 작물 사용을 추구하고 새로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해 제작했다. 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소재로 2021년 완성한 데메트라(Demetra)라는 신소재 개발부터 리테일과 온라인 판매에 도입된 새로운 포장재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한 그린 패키징(Green Packaging)까지, 지속 가능성 실현에 대한 구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에디터 생영민**

Interview with_ 안토넬라 센트라(Antonella Centra)

구찌의 범부 부문 위원이자 기업 업무 및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EVP 안토넬라 센트라와의 대담.



Q 구찌에 입사해 첫 업무를 맡고 가장 먼저 기뻐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2015년 지속 가능성을 감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찌에 입사했을 때 저는 수많은 이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뜨거운 열정에 감명받았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다만 여러 팀 간의 결속력을 채우고 강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구찌가 2015년 광범위한 10개년 지속 가능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죠. Q 지속 가능성이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에 둔 핵심 가치와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구찌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총량 40% 감축을 비롯한 다른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지난 2020년에 목표 41%를 무려 4년 앞당겨 44% 감축이라는 초과 달성에 성공했어요. 모든 생산 공장과 공급망에서 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영향을 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환경 손익(EPS&L) 계산을 작성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외부에 공개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면 우리 사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탄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전개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정장이면서도 가치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

습니다. Q 이러한 발전에 아트랩의 영향도 있을 거 같아요. 아트랩의 어떤 장점이 특히 강력하게 작용했나요? 아트랩은 연결망을 통해 협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구찌의 비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아트랩의 사명은 예술과 산업 기술을 융합해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창의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트랩은 구찌 제조 공정의 근간이 되는 과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동시에 모든 생산 단계에서 순환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을 따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구찌 제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Q 앞으로 구찌 아트랩에서 지켜 나갈 전통과 환경, 미래를 위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신다면요? 구찌 제품은 우수한 품질, 내구성, 마감이 특징입니다. 아트랩을 창성한 덕분에 구찌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 더 철저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품질 및 내구성 테스트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구찌는 진정성 있는 협업 문화를 통해 일상의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전통을 보존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제조 기술과 혁신성 있는 기교를 가르쳐 공예 기술의 헤리티지를 지키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수 학교 에콜 드 라무르를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죠.

editor's Pick

촉촉한 고보습 스킨케어부터 목직한 향의 퍼퓸까지,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미스 디올 로즈 밤 알레피오리 꾸뛰르 에디션** 여행지에서 좋은 호월에 가게 되면 꼭 챙기는 밤 크림. 미카엘라 생기 이 제품은 사모자 콤파트 여행지에 들고 가기 안성맞춤이다. 디올의 시그니처 향수인 미스 디올의 풍부한 향을 온전히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 디올의 **아레피오리**를 담은 꾸뛰르 알레피오리 파편으로 정성된 파카피에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하다. 15gx10 1인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성영민*

구찌 구찌 루즈 드 보네 브리장 플로라 #208 데이 및 인 이브닝 인술 보호와 수분 공급 효과가 있어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제기. 오랫동안 지속되는 은은한 로즈우드 컬러가 입술을 자연스럽고 도톰하며 부러워 보이게 한다. 슬림한 송알 모양 케이스의 플로럴 패턴도 감각적. 1.8g 5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미경*

버버리 바버리 하이로 오 드 파퓸 향수를 고를 때 향이 주는 목직함과 순간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는 편이다. 값어치는 가을에 바다 내음과 숲의 향이 섞인 향을 찾지만 만 제물. 포근한 사투드와 숲의 향이 나뭇잎과 인센스가 섞여 마치 영화 속 평방한 주인공이 영웅이 된 것처럼 휘돈 도전적이고 진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낸다. 50ml 13만6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성영민*

오희 일베이 캐비 더 꾸뛰르 루신 SPF 30/PA++ 아침 밤 관리받은 듯 피부 본연의 광채를 끌어올려주는 쿠션이다. 실크 글로우 포뮬러가 우건고 부담스러운 광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살기만 광채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특히 수경 화장시에 더 유용하다. 13gx2 7천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윤자경*

아베다 핸드 릴리프 오일 바르자마자 촉촉함이 느껴지는 게 싫어서 오일류 기피하는 이들에게도 이 오일은 추천하고 싶다. 은은한 진주빛 골드 스킨케어 오일 무드를 만끽할 수 있는 것 또한 매력 포인트. 상세하게 남는 N5의 진정력으로 이 제품을 바르면 날에는 향수를 패스해도 좋다. 250ml 14만6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by 에디터 성영민*

샤넬 N5 골드 비디 오일 바르자마자 촉촉함이 느껴지는 게 싫어서 오일류 기피하는 이들에게도 이 오일은 추천하고 싶다. 은은한 진주빛 골드 스킨케어 오일 무드를 만끽할 수 있는 것 또한 매력 포인트. 상세하게 남는 N5의 진정력으로 이 제품을 바르면 날에는 향수를 패스해도 좋다. 250ml 14만6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by 에디터 성영민*

바이레도 리퀴드 린스틱 바닐라 타르 데자트 에디터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뷰티 제품 중 하나. 바로 린스틱의 글로시한 투드 린스틱 제품을 만난 순간 모든 속도가 해빙된 듯했다. 너무 끈적이지 않고 글로시한 제형이 아닌 쫄쫄한 텍스처로 입술에 적당한 글로시함을 주는 것은 물론, 갈라짐도 좋다. 어느 피부 톤이나 발도 화분도 보이는 투드 컬러를 갖. 바이레도만의 감성이 담긴 패키지가 디자인까지 소중하게 다가온다. 2.5g 6만9천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성영민*

골레드보 보네 아이 컬러 퀴드 #322 하늘에 있는 별을 담아 무한한 광채를 만들고자 탄생한 레디언트 스킴 컬렉션. 골레드보 보네 크림 40주년을 맞아 피부의 광채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패키지에 담았다. 또 쏟아지는 별뚫별을 색 도에 각인해 발랐을 때 눈가볼에 별빛이 희미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다. 골드와 오렌지, 브라운과 그린, 총 네 가지 색상을 담았다. 10g 10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성영민*

포아레 수블리메 리퀴드 파우더 피부에 신중하게 스며드는 워터 타입 에센스. 일주일 동안 클렌징 후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사용했다니 인센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팬더-리베어 콤플렉스와 녹차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정화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0ml 62만 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윤자경*

룩사담 원더 인사이트 컬렉션 2022 그린 케스트로드 울트라 라지 비디 크림 세계주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에버 오프레드와 협업해 선보인 콜라보 컬렉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전선에 미사처럼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인데, 주은 거울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편안하고 싱그러움 우디 향이 기분이 좋아진다. 100ml 30만9천 원. 문의 02-2054-0500. *by 에디터 장미경*

샤넬도 비비디 파우더 린스 스킴 트리트먼트 콜라보 리미티드 에디션 콜라보 시즌을 맞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화려한 패키지를 탑재한 향, 눈코피, 팔자, 입술, 목까지 모든 주름을 집중적으로 미사처럼 발라준다. 속부터 차오는 탄력을 느낄 수 있었다. 20ml 15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윤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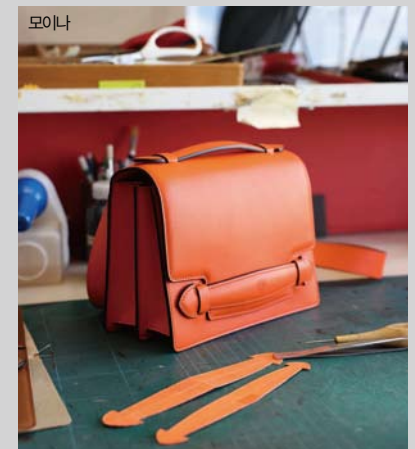
앙마의 목욕탕 레시미 워시오프 마스크 듀오 찬 바람이 불어와 이왕자제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요즘,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한 피부로 가을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이다. 고대부터, 두유와 이소클라본 성분과 꿀, 오우르트, 연꽃, 쌀, 천호 추출물까지 담아내고 탭핑한 기초 퍼퓸을 만들어준다. 비르고 씻기 편한 워시오프 마스크 타입. 70g 2만원. 문의 080-850-1551. *by 에디터 성영민*

자비라 캄페르다 사위 오일 샤워 오일 제품은 대부분 씻은 후 잔여물이 남거나 향이 빠르게 날아가 아쉬웠다. 그러나 질나 발견한 제품. 부드럽고 걸쭉한 질감이 가능하며 촉촉한 보습감이 장시간 느껴진다. 이에 더해 오렌지 블러썬과 제스민, 투베로즈의 향이 은은하게 남는다. 200ml 6만8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성영민*



SHOWROOM

FASHION



모이나 2023 S/S 파리 패션 위크 아틀리에 트립 진행 184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한 유서 깊은 트렁크 메이커 모이나가 지난 10월 5일 2023 S/S 파리 패션 위크 아틀리에 트립을 진행했다. 이번 아틀리에 트립에서 신제품 '색 말(Sac Malle)'과 아이코닉 모델 '가브리엘(Gabrielle)'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모이나의 시그니처 고재 사바스인 이나셀 핸드 페인팅, 스페셜 오 사바스 등을 숙련된 가족 세공 장인들과 함께 선보였다. 아틀리에에서 선보인 모든 제품은 매중 모



발렌티노 윈 스타드 솔더백 럭셔리 오트 꾸뛰르 브랜드 발렌티노가 발렌티노 가리바니 2022 F/W '핑크 PPK(PINK PP)' 컬렉션을 통해 윈 스타드 솔더백을 선보인다. 과감한 크기로 표현한 솔더백은 블랙 컬러 가죽과 메탈릭 스타드를 사용해 세련된 광택을 발한다. 발렌티



로로피아나 캐시데님(CashDenim)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깃든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일본의 데님 제조 지역 빙고와 함께 만든 캐시데님(CashDenim)을 선보인다. 이 소재는 데님 60%와 캐시미어 40%를 섬세하게 혼합한 연사로 포근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캐시데님은 전문 기술자가 인디고 염색 데님 염색과 영색하지 않은 캐시미어 섬유를 만드는데 배를 더해서 제작한다. 이번 신소재를 통해 로로피아나 가공되는 가죽과 장식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6200-7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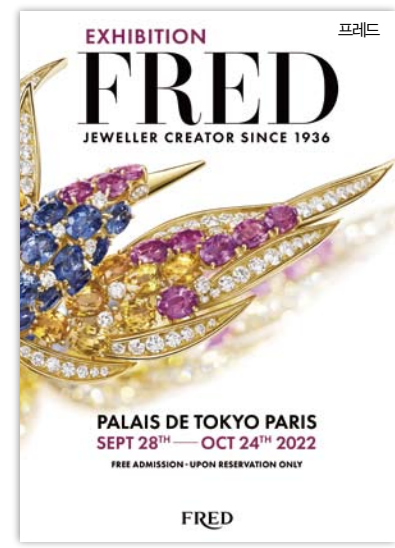
루이 비통 탕부르 20 여행 예술에 대한 기술 혁신과 탁월한 장인 정신을 선보이는 루이 비통에서 루이 비통 시계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탕부르 20(Tambour Twenty)'를 출시한다. 루이 비통의 상징적인 워치, 오리지널 탕부르를 재해석한 탕부르 20는 100m 방수 기능을 물론 22K 골드 로터와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춰 10분의 1초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2백 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된 이번 에디션은 모노그램 캔버스와 미니어처 트렁크와 함께 제공한다. 문의 02-3432-1854

보티가 베네타 시리온 백 보티가 베네타가 2022 겨울 컬렉션에서 하우스의 전통과 현대적인 미학을 새롭게 재해석한 '시리온(SARIN)' 백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나뭇 가지로 제작한 시리온 백은 구조적인 메탈릭 핸들을 양쪽 노드 디테일로 고정해 견고함을 더했다. 보티가 베네타의 조디 백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로 디자인했으며, 톱 핸들로 스타일미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BEAUTY

발롱 저스트 블롬 스위스 인티에이징 브랜드 발롱이 성공한 여성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콜라보네 프라바 오 드 파퓸 컬렉션의 새로운 향, 저스트 블롬을 출시한다. 흙 내음이 나는 마스코 베이스에 새겨낸 투명한 이슬이 맺힌 듯 은은한 플로럴과 과일 향 베이스를 담아 매력적이면서도 강인한 여성을 위한 오 드 파퓸이다. 문의 070-4352-5203

랑콤 레네지 트리플 세럼 랑콤의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레네지에서 3가지 활성 성분을 담은 레네지 트리플 세럼을 올가 부티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레네지 트리플 세럼은 피부에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히알루론산과 빛노 화산한 피부로 가꾸주는 비타민 C 유도체, 항산화 성분인 페롤신을 담았다. 찬 바람이 불어와 건조해지기 쉬운 요즘, 레네지 트리플 세럼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해보자. 문의 080-022-3332



디올 파인 주얼리 로즈 드 방 수디 디올이 사랑한 향의 별을 디올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 스텔린이 비람, 장미, 정교한 여덟 꼭지 별의 형태로 새롭게 재해석해 로즈 드 방(Rose des Vents) 컬렉션으로 선보인다. 비즈 옐로 골드에 카날리언, 라피스 라줄리, 터키즈, 말라카이트 등 다채로운 컬러를 포인트로 삼아 불어오는 비람과 자연의 디테일을 예술 작품처럼 담아냈다. 문의 02-3480-0104

티파니 Tiffany Lock 컬렉션 1백85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가 티파니 Lock(Tiffany Lock) 주얼리 컬렉션을 연례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비즈 옐로 골드에 카날리언, 라피스 라줄리, 터키즈, 말라카이트 등 다채로운 컬러를 포인트로 삼아 불어오는 비람과 자연의 디테일을 예술 작품처럼 담아냈다. 문의 02-3480-0104



태그호이어 911 까레라 RS 2.7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태그호이어와 포르세의 911 까레라 RS 2.7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타임피스 출시한다. 글라저 블루(Glazier Blue) 컬러의 911 까레라 RS 2.7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에디션과 포르세의 가드 레드(Guards Red) 컬러의 911 까레라 RS 2.7 차량으로 디자인한 레드 에디션, 27자로 선보인다. 이번 에디션은 전 세계 블루 에디션 5백 개, 레드 에디션 2백50개 한정량으로 출시하며, 국내에서는 블루 에디션만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02-548-6021

프레드 파리 팔레 드 도쿄 메종 프레드 전신형 영롱한 스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브랜드 프레드가 9월 28일,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 최초의 메종 전신형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4백50점 이상의 주얼리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한한다. 티파니의 모터브인 저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파니 락 컬렉션

메종 프레드를 창립해 메종에 영감을 미친 프레드 사무엘의 인생과 인간적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의 02-514-3721

리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신규 오픈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리도가 9월 28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에 부티크를 오픈했다. 리도 부티크 오픈 기념으로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은 다이아스타(DiaStar)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158

해리슨 PSR 디지털 쿼츠 세계 최초 LED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 손목시계 필사, 해리슨의 PSR 컬렉션은 디지털 쿼츠 무브먼트, 10bar의 방수 기능과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로 견고함을 더해 테이 리모콘으로 선보여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해 가득성을 높였다. 문의 032-320-7559

다이아나 벨 에프코 브라이얼 컬렉션 1백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이아나에서 현대적인 주얼리 작품으로 재해석한 웨딩 링 벨 에프코 브라이얼 라인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핑크 옐로 골드와 플라티넘 소재에 웨딩 밴드, 이터니티 슐리터 리모콘으로 선보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합해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515-1924



JEWEL & WATCH

THE NUDO COLLECTION

DESIGNED IN MILAN

PIAZZA VI FEBBRAIO
RENATO FERRARI



Pomellato

MILANO 1967

CLIENT SERVICE CENTER · 02 3143 9486